

# 종교가 사회문제 해법 제시해야

## 합세웅 신부 사회 현안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질책 호소

“사회와 결별하고 벽 안에만 있으면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사회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오랜 지도자로 민주화 운동 등 사회변혁을 이끌어 온 합세웅 신부(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7월 27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개최한 불교미래포럼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 사회현안에 대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호소했다.

“종교의 눈으로 바라본 유신에서 촛불까지”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합 신부는 남북 경색국면 해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종교계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 신부는 “불자 수에서 드러나듯 한국인들의 심심기저에는 불교적 요소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정권의 지도자가 바르지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불교”라고 말했다.

이어 합 신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개발 사업은 자연과파괴는 큰 위험 앞에서 모두 염려하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천주교 내에도 철저한 보수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종교의



합세웅 신부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개최한 불교미래포럼에서 불교계가 사회부조리에 맞서 연대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역할을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자 하나 하나의 기도와 질책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 신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색국면에 대해 “남북분단 상황 속에 있는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반공과 안보라는 논리로, 공권력이 총동원돼 국민들을 세뇌하고 협박

하고 있다. 남북은 각각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사대주의를 먼저 극복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합 신부는 이어 “일부 정치 세력이 주요인력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을 확대과장 선전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지만 6·2지방선거의 결과로 ‘민심은 천심이다’는 격언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새로운 세대에 대해 더 큰 희망을 갖게 됐다. 선

거결과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무소불위의 독재로 치달던 정권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에 대해 6·2지방선거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평했다.

합 신부는 “올해는 안중근 순국 100주년, 6·25 60년, 광주항쟁 30주년, 6·15 선언 10주년 등 기념비적인 행사들이 많은 그야말로 기적의 해”라며 인권·민주화 운동가 등 사회운동가들이 더욱 활발한 활

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합세웅 신부는 보수적이고 사회활동에 나서지 않던 신부들이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해 투옥당한 일화 등도 털어놓았다.

합 신부는 “1965년 군을 제대하고 8년간 로마에 유학하고 돌아와 중학생들까지 6·25 기념행사에 동원시키는 것을 보고 첫 문제의식을 느꼈으며, 1974년 7월 외국에서 돌아오던 지학상 주교가 학생운동 자금지원 명목으로 김포공항에서 정부부에 끌려가는 것을 보며 사제로서 사회적 행동을 펼쳐게 됐다”고 밝혔다.

합 신부는 “서울 수도권의 젊은 사제 30여 명이 모여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는 뜻에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출발점”이라며 “독재자의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 대해 ‘아니오’를 분명히 말한 사제들에게 모든 이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응답했고 그해 9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구성해 오늘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사람만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꼭 현실이 된다”는 합 신부.

합 신부는 끝으로 이상적 한국 시민사회 근간 정점으로 삼할 독립투쟁과 친일잔재청산작업 △민 주주의 실현과 군부독재 청산작업 △민족의 일치와 화해 등 세 가지를 꼽으며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100자 뉴스

#### 대중결사 8월 아카데미 ‘노예인가 주인인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8월 9일 오후 6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관에서 ‘당신은 노예인가? 주인인가?’를 주제로 8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마가 스님이 자비명상을 진행하는 행사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02)732-1209 조동섭 기자

#### 불교환경연대 ‘뚝딱 숲속’ 어린이 생태학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8월 6-8일 경기 남양주시 병영사에서 ‘뚝딱!! 숲속’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3-5학년 어린이 대상의 행사에서는 숲속 보물찾기, 예쁜, 빈그릇 공방 등 다양한 사찰 체험과 생태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 선착순 30명. (02)720-1654 조동섭 기자

#### 아름다운동행 이영임 불자 삼천만원 보시

안성 칠장사에 다니는 이영임 불자(법명 선화궁)가 자비나눔 기금 3000만 원을 보시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과 이영임 불자는 7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영임 불자가 기탁한 3000만원은 논산 훈련소 범당, 로터스월드, 연꽃마을에 각각 1000만 원씩 전달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영임 보살의 소중한 헌원이 불교계가 진행중인 뜻 깊은 일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목야박물관 경기도내 청소년에 무료 개방

불교박물관인 여주 목야박물관(관장 박찬수)이 2010년 경기도 내 청소년에게 무료 개방된다. 박물관 측은 ‘2010년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무료로 단체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 목야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08호 목야 박찬수씨가 한국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을 위해 설립했다. (031)885-9952 노덕현 기자

#### 조계종 균종교구 ‘군승교육편람’ 발간

군승교육을 집대성한 자료가 출간된다. 조계종 균종교구(교구장 자광)는 최근 ‘예비군승에서 현역 군승에 이르기까지 군승교육을 총망라한 <군승교육편람>을 발간하고 8월 중 고불식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군승교육편람>은 현역 군승 10여 명이 투입돼 2008년 7월부터 2년 여에 걸쳐 12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책에는 군승 제규정과 군불교 현황, 의식 및 설법자료, 상담, 포교방법론, 군중상교의 역할, 이웃종교 관련 자료 등 군승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균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군승교육편람>은 초대교구에서부터 현재까지 군승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편람이다. 앞으로 군승 교육지침서로 활용돼 군승 자질향상은 물론 군포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대북문제 2題

#### 민간 지원 이어져야

최근 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라 대북 민간 교류 사업이 무더기로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민간차원에서 대북 지원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토행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중단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승 스님 초청 답답에는 정토법당 원장 유수 스님, 정토행자 10여 명이 자리했다. 이상연 기자

#### 밀가루 지원 연기

5대 종단 대표들의 모임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추진중인 30여 명 개성 방문과 밀가루 300톤 지원이 8월로 다시 연기됐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관계자는 “남북 대결 구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은 어려움을 초월한 자리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종교인들의 방북이 성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종교인들이 물고기를 터야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교류와 식량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 대한불교원용종 총무원장 체의 스님 취임법회

(사)대한불교원용종은 7월 28일 서울 구로동 명품웨딩홀에서 제8대 총무원장 체의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원용종 4대강령인 ‘원용무애, 원만응통, 원통응화, 원용회통’ 선장으로 시작된 취임법회에는 일공 종정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임 총무원장 체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과 포교에 중점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중체대비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공 종정스님은 법어에서 “최선



의 노력으로 소임을 다한 성관 스님의 노고를 치하한다.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원용의 의미를 다 해가는 종단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서는 종단발전예노

력해 온 종도들에 대한 공로패와 신임 각 원장과 총무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됐다. (02)853-0531 조동섭 기자

###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16세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일어판 近刊

대행서점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열불수행에 의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도과 도강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에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겉껍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계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오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최천후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 직권후후.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자상 평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I 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